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월 28일(주일) 제1182호

2018 목회사관학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진은 지난해 목회사관학교

1월 29일~2월 1일, 온누리교회 목회자 340명 참석 영적 연합과 내적치유 초점, 이재훈 목사, 이정선 사모 강의

2018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내일(29일)부터 2월 1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솔 오크밸리에서 개최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40명이 참석해 온누리교회 비전과 영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목회 철학 공유 및 팀 빌딩 등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에 집중했던 기존 목회사관학교와 달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을

기대하며 내적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이정선 사모가 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사관학교 첫째 날 개강예배와 넷째 날 폐회예배, 이정선 사모는 둘째 날과 셋째 날 강의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방어기제와 세상웃’, ‘십자가에서의 내면의 치유 1, 2’, ‘영적 전쟁’을 주제로 6회에 걸쳐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조별로 소그룹모임을 실시한다.

조원들끼리 강의 소감을 심도 있게 나누고, ‘감정나누기’, ‘원가정의 회복’을 주제로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누리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축제다.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사역 방향, 동역의 기쁨을 공유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온누리 목회사관학교는 올해가 16회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 누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설날”

온누리M미션, 설날 수련회 개최

온누리M미션이 온 누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설날 수련회를 개최한다. 2월 3일 중국어예배를 시작으로 베트남, 네팔, 태국, 필리핀 등 총 13개국 언어 예배공동체가 각각 설날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주민 9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러스타(RUSTA)와 미안바, 몽골, 베트남 예배공동체는 외부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한다. 러스타는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다.

문의: 윤용순 목사(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협력위원 50여 명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18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이번 Acts29 비전 컨퍼런스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29개 해외비전교회 전임목회자와 협력위원, 이재훈 담임 목사, 이철 장로(당회서기), 이인용 장로(해외

비전교회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예꿈뮤지컬 문화공연, 전체 모임, 지역별 모임, CGNTV 단편드라마 ‘다시 봄’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해외비

전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유현목 목사(오uckland 온누리교회)는 “고향에 온 것처럼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됐다”고 했고,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아치오 온누리교회)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다함께 모여 비전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28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설날 수련회 일정 표

공동체	일시	장소
아랍어예배	2월 1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캄보디아어예배	2월 16일~18일	파주솔수양관
몽골어예배	2월 15일~17일	불광동 탐수양관
네팔어예배	2월 16일	인산M센터
태국어예배	2월 16일~18일	양평 다문화생태마을
필리핀어예배	2월 17일~18일	미정
베트남어예배	2월 15일~16일	인산동산교회수양관
스리랑카어예배	2월 17일~18일	미정
인도네시아어예배	2월 17일~18일	미정(양평)
중국어예배	2월 3일, 15일	인산M센터
우즈베키스탄어예배	2월 18일	인산M센터
미얀마어예배	2월 15일~17일	인산M센터
러스타(RUSTA)	2월 15일~17일	Acts29비전빌리지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가로 12.6cm, 세로 18cm 중이 153쪽의 가벼운 소책자. 쉽게 책장을 넘기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분명 가벼운 책인데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장을 넘길수록 글에 배어있는 여운과 신앙고백이 묵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책이다.

책 <남는 건 사랑뿐일세>(도서출판 다비다)는 올해 백수(白壽, 99세)를 맞이한 황숙희 권사(삼청감리교회)의 신앙고백서다. 황 권사는 원우현 장로(온누리교회 사역장로, 몽골국제대학 부총장)의 어머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살아온 노인의 정금 같은 신앙고백을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이더라”

백수(白壽) 어머니와 그 아들의 신앙고백

황숙희 권사는 1920년생이다. 올해 나이 99세다. 100(百)세에서 한 살이 모자란 백수(白壽)이다. 황 권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다. 숙명여고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그녀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한 것은 시어머니의 영향이었다.

며느리, 시어머니의 믿음을 받는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 따라 아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셨어요. 시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며느리가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서 속으로는 ‘이걸 왜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황숙희 권사의 아들 원우현 장로가 어머니의 신앙의 처음을 알려줬다. 99세 나이에 삶과 신앙의 지혜가 함축된 책을 쓴 사람의 신앙의 시작이 시어머니 따라 간 것이라니 조금은 의외였다. 믿음이 교회만 따라다니던 황 권사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된 계기 또한 시어머니 영향이었다.

바야흐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4후퇴 때. 원 장로 가족도 피난 대열에 섞여 피난을 떠났다. 낮선마을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집을 뚫찰나, 건넌마을에 비행폭격이 시작됐다. 피난민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황 권사네 가족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산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시어머니가 그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폭격으로 마을이 화염에 싸인 그 야말로 절체절명 순간에 시어머니는 찬송과 기도를 하고 계셨다. 원 장로가 어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다.

“할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찬송을 부르고 계셨대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전쟁이라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며느리 황 권사는 속으로 ‘도대체 어머니 안에 있는 저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치 루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과 함께 할머니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로 할머니의



왼쪽부터 원우현 장로(아들), 황숙희 권사(어머니), 이방숙 권사(며느리).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셨어요.”

어머니의 신앙, 자녀에게 대물림 되다

황 권사가 살아온 시절은 말 그대로 격동의 연속이었다. 일제 강점기와 8.15 해방, 6.25 한국전쟁, 한강의 기적, 민주화, IMF사태, 밀레니엄 시대까지 격동의 한 세기를 살았다. 그 모진 세월을 살아낸 황 권사의 신앙은 담담하면서 묵직했다. 원 장로는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감사했다. 어머니의 신앙고백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다.

“저도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 글과 신앙은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어요.”

백발이 아주 맛있는 원우현 장로도 마냥 젊은 나이가 아니다. 올해 76세로 그의 연수(年數) 또한 어머니 못지않다. 그러나 백발 가득한 노인이 되어서도 제일 기억나고 제일 힘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했다.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살 때였어요. 함께 살던 어머니께서 모(母)교회까지 가기 어려워서 새벽기도를 온누리교회에서 드리셨어요. 그런데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찾으러 교회에 가면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 장로의 말대로 황 권사의 기도 덕분에 6남매가 잘 자랄 수 있었다. 황 권사는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돈이 아니라 기도를 보내주셨다.

“우리 어머니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왜 공부 안하냐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6남매가 모두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덕분이에요.”

원우현 장로는 지난 2016년 명예와 지위, 돈과 아무런 관계없는 몽골행을 택했다. 몽골국

제대학(MIU)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하기 위해서였다. 다 늙은 아들이 험한 곳으로 간다고 하니 어머니로서 분명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황 권사는 아들의 선택을 기도로 묵묵히 지원했다.

아들 손에 쥐여 준 꼬깃꼬깃한 쪽지

“작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고 어머니께 절을 드렸는데 저에게 쪽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공항에서 꺼내 보니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이 어찌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황 권사가 아들 손에 쥐여 준 꼬깃꼬깃한 쪽지에는 늙은 아들을 걱정하는 노모(老母)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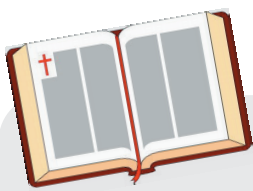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주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한 주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를 반드시 지키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선교지로 떠나는 아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기도가 또 어디 있을까. 원 장로는 어머니의 기도예 힘입어 MIU에서 학생들에게 학문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MIU 학생들의 40% 정도는 몽골인이 아니라 다국적 학생들입니다. MIU 교실이 선교지이고, 학생들이 선교 대상인 것이죠. 저는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을 외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해서 꿈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 산만했던 교실 분위기가 차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업 분위기를 밀집시키는 것이죠.”

일제의 핍박과 전쟁,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황 권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희로애락을 겪어보니 어느새 미움과 증오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라고 고백했다.

“이 책의 모든 글은 내 생활 습관의 열매입니다. 류마티스 통증을 잊으려고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실수와 과오(過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눈 녹듯 사라지고 자녀들의 사랑만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사하신 영원한 사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의 삶에는 방해처럼 보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런 사실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방해처럼 여겨지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나병환자가 나타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천장이 열리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3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중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5장에서는 회당장 ‘아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 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26절).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의사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의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사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주술사나 점성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플리니’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의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내려주는 처방과 약은 여우의 두 개골, 개구리 간, 쥐의 머리, 부엉이 뇌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주술적이고 점성술적인 믿음을 강요당한 이 여인은 이상한 약들을 사 먹느라 전 재산을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12년 동안 병이 지속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병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마가복음 5:21~34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연약한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았다면 무리들은 도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모험을 감행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댔습니다”(24절).

서로 밀고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따라가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뒤에서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앞이 아니라 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간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뒤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않고 고침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술적인 힘을 가진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신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27~28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사람들로부터 주입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

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29절).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의 병이 실제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치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잘못된 동기와 믿음을 갖고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지금 잘못된 동기로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주시며 읽어보라고 하시는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이 여인과 같은 삶의 고통, 목마름, 갈망 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에서 만나려는 사람들까지도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의 마음대로 되도록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30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는 질문은 마치 도둑질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고자 따라온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이미 아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을 아셨고, 여인의 병이 고쳐지도록 능력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도록 능력을 베풀어주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시며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고침만 받고 의도와 목적대로 조용히 사라졌다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으며, 평생 미신적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손가락질하며 그 여인을 집어내실 수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신 것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표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밝히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문제해결 여부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와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2차적 문제입니다. 접촉점일 뿐이고, 계기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는 남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고침 받은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신년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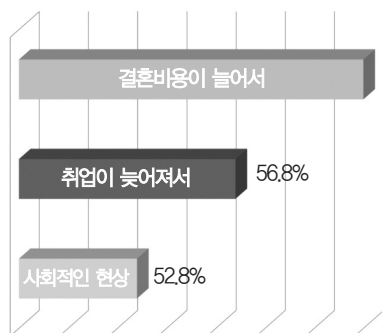
2018년 청년들이 꼭 해야 할 일 결혼

“그래도 결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청년들마저 결혼관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경제적 부담감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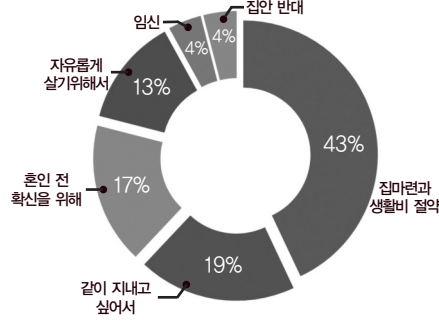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중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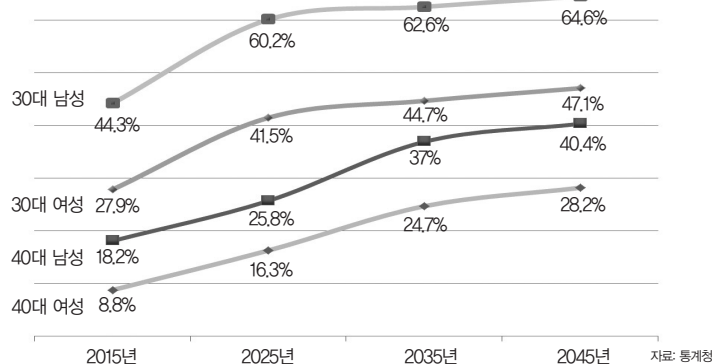
자료: 모바일리서치 '오픈서베이'

동거선택 이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30, 40대 미혼율 현황과 전망



자료: 통계청

A형제(30, 청년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할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다 보니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져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B자매(27, 타교인)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연애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다.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2035년에는 우리나라 청년 3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혼대국’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 미혼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28만 1635건으로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6년(43만 4911건)에 비하면 20년 만에 무려 15만 3276건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결혼저력기인 30대들의 미혼율이 크게 상승했다. 2015년 30대 남성 미혼율이 44.3%, 여성 미혼율이 27.9%다. 남녀 미혼율을 합치면 우리나라 청년 3명 중 1명이 미혼이다. 2025년에는 30대 미혼율이 50.8%로 높아지고, 2035년엔 53.6%나 될 전망이다. 3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미혼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과 일본 국립인구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생애미혼율(전체 인구 가운데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 평생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남성은 2015년 23.4%에서 2025년 27.4%, 2035년 29%로 늘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4.1%에서 18.9%, 19.2%로 10년마다 4%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5년까지 일본보다 생애미혼율이 낮지만, 2035년 이후에는 일본 생애미혼율을 추월할 전망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대목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바일리서치 ‘오픈서베이’가 지난해 전국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미혼자 꼽은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중복 허용)는 결혼비용이 늘어서(62%)가 가장 많았다. 취업이 늦어져서(56.8%), 사회적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없어져서(52.8%)가 그 다음이었다.

결국, 경제적 부담감이 크고, 청년들의 결혼관이 달라진 것이 그 원인이다. 경제적인 부담

감은 결혼준비 과정에서도 느끼고 있었다. 결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주택자금(58.7%), 결혼비용 마련(52.1%)이라는 대답(중복 허용)이 가장 많았다. 웨딩컨설팅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주택 자금은 전국 평균 1억 8,640만원으로 전체 결혼 비용(2억 6,332만원)의 70.8%를 차지했다. 주택자금 외에 결혼비용은 총 7,692만원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비혼(非婚)이란 결혼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미혼 청년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지난해 강유진 총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혼 성인남녀 중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는 사람은 20%가량에 불과했다. 강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분석해서 비혼의 유형을 결혼비용 부담형, 기회상실형, 불이익 부담형, 자발형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80%가 비자발적 비혼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의 결혼관도 많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인턴’이다. ‘결혼인턴’은 KBS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말이다. 혼인을 미리 겪어본다는 의미이지만 결국 동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결혼관의 변화는 젊은 층에서 쉽게 발견된다. 2017년 4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

한 ‘청소년의 결혼과 가사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 응답자 5,568명 중 61.7%가 “결혼 전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08년 56%, 2012년 58.4%, 2016년부터 60%를 넘어섰다.

동거를 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49세 동거 유경험자 253명을 조사해 발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에서 “주택 마련 및 생활비 절약 등의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택했다”고 답한 비율이 43%를 차지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동거가 하나의 방책으로 환영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거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책임감도 열어 헤어지기 쉽다는 우려가 늘 따라다닌다. 이별 이후 낙인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미혼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2016년)에 따르면 “용납할 수 없는 애인의 과거는?”이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245명)가 꼽은 것은 ‘동거 경험’(49%)이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266명)는 ‘양다리 경험’(33.8%)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동거 경험’은 12%에 머물렀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크리스천 청년들마저 결혼관이 흔들리고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상황이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장 19~20절을 보면 아담이 에덴동산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이후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섬세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를 잠들게 한 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창 2:21~22).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도 성경적인

결혼관을 살펴볼 수 있다.

요셉은 젊고 용모가 준수했다. 그런 요셉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여 급기야 동침하기를 청한다(창 39:7). 젊은 요셉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여자는 주인의 위치에 있었다. 거절했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요셉은 주인의 은

혜를 절대로 배반할 수 없었고, 둘째,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다. 그런 요셉은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

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탈리아에 “아내 없는 남편은 고삐 풀린 말

이고, 남편 없는 아내는 잡을 키가 없는 배”라는 속담이 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꼭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결혼은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결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나부터 예비 신앙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결혼도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기복 교수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결혼코칭〉, 〈성경적 부모교실〉, 〈성경적 아내교실〉 저자)

우리의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듯이 우리 삶에는 인생의 타임스케줄이 있다. 그러한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언제쯤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도 비전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요즘 드라마를 보면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가진 남자가 프러포즈를 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결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려는 태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예전에는 방 한 칸 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었다. 둘이 알뜰하게 살면서 밥술과 TV 등 하나씩 장만하는 것이 사는 재미였다. 경제적 여건을 다 갖추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물질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물질의 풍요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둘이 힘을 합쳐 하나씩 일구어 가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기 바란다. 현재 소유한 재산보다 희망과 성실함과 믿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시작하기 바란다.

결혼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경력을 쌓고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 승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 두고 집에 있는 젊은 엄마를 만난 적이 있다.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여기면서, 사랑스런 아이조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다. 무섭다는 마음이 들었다. 엄마로서 귀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경력 중에 큰 경력이다.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경영 중의 큰 경영이다. 다 때가 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큰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

대부분 아이를 키우면 내 경력이 단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을 사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서 틈틈이 전문적 책도 읽고 내적인 성숙을 이루며 준비할 수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 나 또한 청년의 때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때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공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란 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열린 마음과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 인생의 때를 분별하기를 바란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과 성품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결혼제도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 두 사람에게 함께 사명을 주신 섭리가 있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잠시 동안 혼자서 고독을 즐길 수 있지만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다.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최소 단위가 결혼이다. 가정 안에서 아깝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은 상호보완이다. 마치 기업합병(M&A)과도 같다. 기업합병이란 두 개의 기업이 더 큰 생산효과를 내기 위해 합병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20년 혹은

30년 이상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서로의 약한 면을 보완하고, 더 큰 생산성을 기대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합병을 감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혼자보다 둘이 함께 할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은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길이다.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미숙함이 결혼한 후에는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결혼은 나를 단련하고 성숙시킨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통해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르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고 말씀하셨다.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지상명령이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큰 비전이요, 삶의 목표이다.

나는 유행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따를 것인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다. 반면에 비혼주의는 사탄의 계략이다. 크리스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만드신 결혼제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길이며 성공의 길이다.

내가 보석이 되면 보석을 만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결혼 준비가 무엇일까? 최고의 결혼준비는 내가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석은 어디에 있든지 빛나게 되어 있다. 내가 보석이 되면 보석을 만난다. 보석이란 내적, 외적, 정신적, 영적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말한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혼전동거가 만연해 있다. 이 또한 인간을 파멸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세상의 유행, 문화, 풍조 속에 들

어있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다. 혼전동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미국 덴버대학에서의 연구 결과 동거를 했던 부부는 43.1%가 결혼생활에 불만족했고, 동거를 하지 않은 부부는 16.4%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결혼 후에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들과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또한 혼전동거가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혼전에 순결을 지킬 수 없고 지금 성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동일하게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다. 성에 대한 유혹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절제할 수 없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사도바울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전 7:9)”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결혼준비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다.

보석이 되라.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선을 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함을 베풀라. 보석으로 살면 보석을 만나게 된다.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비한 환상과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주셨다. 그 이성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주위에 자문도 구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내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람을 기다리면 영원히 못 만난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이제부터 함께 인생을 설계하라. 믿음으로 가정을 속히 시작하라. 둘이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결혼 작전을 시작하기 바란다.



더 멋진 세상 이 간다 1. 멕시코 뿌엔페스 마을

“우리 마을에도 학교가 생겼다”

멕시코 뿌엔페스 마을에 새 희망이 움트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내일’을 선물하기 위하여 사막에 도로를 내고, 오지에 마을을 짓고 있다. 선교사들조차 가지 못하는 곳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고 있다. 본지에서는 매월 1회씩 총 4회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구에 있는 뿌엔페스 마을을 찾아가 학교를 지어준 일이다.

/ 편집자 주

이제 멕시코 뿌엔페스 마을 초등학교생들이 목숨 걸고 등하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줬기 때문이다. 납치와 성폭행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마등록 도시난민촌이었던 이 마을이 공식적인 마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앞으로 마을회관과 운동장이 완성되고, 공식적인 마을로 인정받게 되면 이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목숨 걸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멕시코 티후아나 지구에 있는 뿌엔페스 마을은 도시난민촌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다. 뿌엔페스 마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이 500명이 넘는데 학교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이웃마을 학교에 다니는데 등하굣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등하굣길에 불량배들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공부만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뿌엔페스 마을을 섬기고 있는 카를로스 목사는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코 학교라고 했다.

“학교에 다녀오겠다던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뿌엔페스 마을은 정식으로 등록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았어요. 마을을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학교, 운동장, 마을회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루 벌여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전부니까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주민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접경지역에 위치한 티후아나 지구는 멕시코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그런데 티후아나 지구 동남쪽에

있는 뿌엔페스 마을은 사정이 다르다. 국경을 넘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뿌엔페스 마을은 채석장과 쓰레기 소각장 중간에 있다. 2년 6개월 전부터 도시난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됐다. 처음에는 다섯 가구뿐이었는데 지금은 약 5백 가구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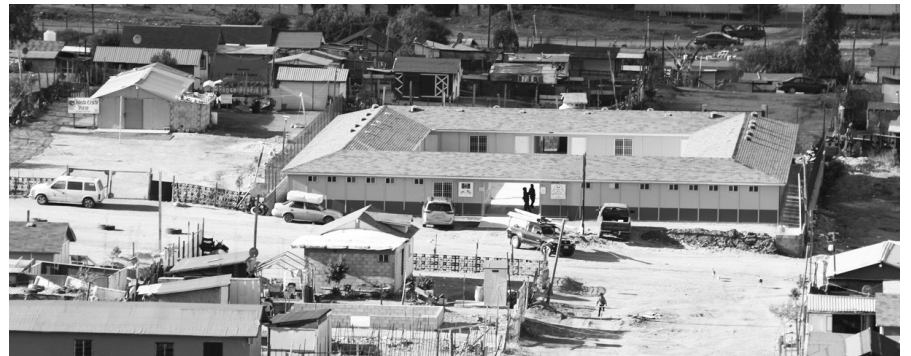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마약중독자와 폭력배도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목공, 전기기술자, 간호사, 판매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일용직들이다. 벌이가 좋은 편에 속하는 목공일을 하면 한 주에 1,400페소(약 8만 원)를 벌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 셋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게에 한 톨이라도 보태고 싶고,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노인들과 주부들이 마을 외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돈을 번다. 페타이어가 타고 남은 금속,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이 마을에는 늘 쓰레기 타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하다. 이 마을 아이들은 쓰레기 타는 연기가 가득한 언덕에 앉아서 놀고 있다.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NGO 더멋진세상, LA 온누리교회, NGO 프로젝트 머시(멕시코에 집 짓는 미국 NGO)가 뿌엔페스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마을개발 계획을 세우고, 마을 주민들을 교육했다. LA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뿌엔페스 마을을 찾아가 학교를 지어줬다. 직접 못을 박고 페인트칠을 했다. NGO 프로젝트 머시는 학교 건축 기술과 봉사자들을 제공했다.

이종태 장로(LA 온누리교회)는 뿌엔페스 마을에 학교를 지은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새벽 5시에 LA에서 출발해서 뿌엔페스 마을 학교건축에 동참했어요. 제 나이가 70세를 훌쩍 넘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뿌엔페스 마을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언제든지 망치를 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뿌엔페스 초등학교(위)와 프리스쿨에 참석한 아이들(아래).

NGO 프로젝트 머시 책임자 존에게는 평생 숙원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저는 멕시코인들에게 23년 동안 집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뿌엔페스 마을에 학교를 지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뿌엔페스 마을 학교 건축에는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이라며 수시로 건축현장을 찾아와 도왔다. 학교를 건축하면서 주민의식도 생기고, 주민들끼리 연합하는 이점도 있었다. 목수인 에우헤니오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건축에 동참했다.

“두 딸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는 딸들과 함께 뿌엔페스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제 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뤄졌어요. 뿌엔페스 마을이 우리 가족의 제2의 고향이 될 거예요.”

뿌엔페스 마을 이장 마르시오는 건축 과정을 지켜보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

“한동안 교회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가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분명해요.”

뿌엔페스 초등학교에는 교실 14개가 있다. 1개 교실에 학생 30명씩 총 4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학교를 운영

할 경우 84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뿌엔페스 마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어린이들도 이 학교를 찾게 될 것이다.

축복은 이제 시작이다

뿌엔페스 초등학교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지난 1월부터 매주 ‘프리스쿨’을 열고 있다. 프리스쿨은 교육봉사 단체에서 훈련 받은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2일 뿌엔페스 초등학교 오픈식이 열리는 날에도 주민 제시카가 아이들 30여 명을 모아 놓고 ‘감정교육’을 하고 있었다. 교실보다는 매캐한 연기 가득한 골목이, 연필보다는 장난감 총칼이 익숙한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웅기조기 모여 수업을 들었다. 팔 오나가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 아나베씨는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로서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NGO 더멋진세상, LA 온누리교회, NGO 프로젝트 머시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뿌엔페스 마을과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제 시작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LA 온누리교회, NGO 프로젝트 머시와 함께 운동장과 마을회관을 지어 이 마을의 정식등록을 돕는 한편, 마을 주민들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총체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2

자화상 다시 그리기

거짓자아 벗고, '나는 나' 로서 살아가기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성을 진단하고 체크해야 한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기훈 목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한다.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

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일대일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왜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정체성이 올바르게 서있지 않으면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자화상 속 내 모습은?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 지가 느껴진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통이었을 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흐의 내면을 한 장의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려보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가상으로 자화상을 한번 그려서 표정을 살펴보자. 무표정이거나 화난 얼굴, 우는 얼굴, 웃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현재 모습이고, 현재 감정 상태이다. 왜 슬픈지, 왜 행복한지 그 원인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된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한다. 자신의 스펙, 소유, 지위가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한다. 한마디로 거짓자아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거짓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고난과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거짓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자신의 일을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세상에서의 성공 유무가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두 번째,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평가한다. 일명 '갑질'이 그 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하찮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한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들의 평가와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해 그 기준에 맞춰 살고자 한다. 이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거짓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함과 자기 존재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 삶의 누림은 없고, 놀림만 있다.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안 된다. '나는 나' 로서 살아야 한다. 영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나는 사랑받을 사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이런 말들은 자녀의 존재가치를 없애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학교에 오는 많은 아버지들의 공통된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어릴 때 부모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누구인지에 진짜 나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온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로 나간 다윗의 형들이 무사한지 다윗에게 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을 꾸짖었다.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며 막내인 다윗을 무시했다(삼상 17:28). 그런데 다윗은 무시를 당했지만 결코 풀이 죽지 않았고, 풀리지도 않았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삼상 17:33).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했다. 다윗은 사울의 무시에도 당당하게 말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 가면 뒤쫓아 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삼상 17:34-37).

다윗의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윗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유함과 차별함을 스스로 주장했다.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자존감을 무기로 상황에 임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만들지 않으셨다.

셋째, '나는 나' 로서 살아간다.

“그는 다윗을 몰고리며 쳐다보고는 그가 불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삼상 17:42-43).

골리앗도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다윗이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삼상 17:45).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알고, 부족함을 알았다. 그러나 남들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다. 이것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나' 로서 당당하게 사는 건강함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살 수 있다.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자아이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거짓자아로 살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일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거짓자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면을 벗어버리길 바란다. 나는 나로서 살아야 한다. 자신이 지금껏 생각한 자화상과 하나님이 그려주신 자화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묵상해 보자. 백지에 과거의 자화상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자화상을 그려보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람.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실패한 인생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었다. 그런 그들이 쇼맨을 만나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노래로 자신들을 표현했다. 이 가사를 읊조려 보자.

참 자아로 살아가는 방법

거짓자아를 벗어버리고 참 자아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의 참모습이 많이 왜곡됐다. 많은 경우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언행들로부터 비롯된다. 부모들이 말했 피우는 자녀에게 “어쩌다 너 같은 게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안 낳으려다가 낳았다” 등의 말을 쉽게 내뱉는다.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삼상 17:29)라며 당당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해도 그것에 놀리지 않았다.

둘째, 비교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가 이 부분이 취약한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것과 맞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맞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 사람의 독특함과 개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유행이 그렇다. 다른 이들이 다 하는 유행을 따라 입어야 하고, 유행을 따라하지 않으면 사회와 동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인식한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화된 나,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종하는 골리앗과 싸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나?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할 ‘병문안 에티켓’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라!

병문안 한번 안 가본 사람 없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랜 병상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와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작은 말과 행동에도 큰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원목 김정숙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병문안 에티켓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서울삼성병원 원목)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 재산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

는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 손상을 입게 되며, 병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불치병이거나 말기로 가는 암일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방문자도 뜸해지고 외로워지기 시작한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사역할 때와 큰 괴리가 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동역자들이 많았던 그 시절이 더 그리워진다.

질병으로 건강하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병세가 악화되면 점점 더 초췌해지기 시작한다. 건강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물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환자들은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심지어 교회와 단절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그 고통과 외로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보다 외롭고 고통스런 것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라고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질병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는다. 개념 없이 요구하는 믿음과 부담스러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좋아하던 동역자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게 된다. 슬픔과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종종 정죄하는 말이 섞여 있곤 하다.

“집사님, 우리의 죄가 커서 아픈 거예요. 함께 회개해요.”

누구라도 일주일엔 한 번씩 이런 정죄의 기도를 들으면 교회가 싫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병문안을 온 동역자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가 되던 말도 정반대로 다가올 때가 있다. 신앙에 위로가 되던 권면도 정죄로 들려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도 병문안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병문안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다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다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욥 2:11).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다친 소식을 듣고 심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욥은 두 번째 시험을 받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가득한 상태였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욥 2:12).

욥의 상태는 친구들이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친구들은 이때 일제히 소리 질러 울었고, 겹옷을 찢고 재를 뿌렸다. 세 친구들은 소리를 질러 울면서 욥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했고, 겹옷을 찢고 재를 뿌린 것은 욥을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다에 놀러 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욥 2:13).

이후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함께 있어주면서 침묵했다. 욥은 친구들이 함께 있어 줌으로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 병문안의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며 욥을 정죄하기에 이른다.

가장 좋은 병문안 ‘함께 있어주기’

그렇다면 병문안을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환자를 보고 울거나 겹옷을 찢을 필요는 없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심방이다. 외로운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게 한다.

좋은 말과 힘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한두 번 병문안을 다녀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슷한 병세를 겪어본 적이 없으면 진행되는 병세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많은 말은 필요 없다. 그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함께 있어주면 된다.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드시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같은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 가만히 바라만 보며 손을 살피시 잡아주거나 몸을 마사지해줘도 좋다. 말기암 환자와 같이 오랫동안 누워서 생활한 환자의 경우 옆으로 누워 등 가운데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힘을 실어 위아래로 살살 밀어줘도 좋다.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고 기침만 할 경우 등을 토닥거리 주면 금세 시원하게 가래를 뱉어낸다. 이노가 잘 되지 않아 다리와 발이 부어 있을 때에는 발목 아래서 종아리 위쪽을 손바닥으로 반복해서 밀어 올려 주면 좋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신경을 쓰면 좋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음식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동역자인 어느 목사님께서 암 투병하실 때 있었던 일이 생각한다. 호박죽이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냄비에 가득 끓여 놓은 것을 보고 먹을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우거지 넣은 된장국도 많은 양을 보면 다시는 먹을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다. 환자에게는 조금씩 자주 함께 먹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믿음을 평가하고 강요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이 병문안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회복이 안 된다는 누앙스의 말을 많이 듣는다. 더 나아가 몇몇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데 환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된다. 병실에 누워 있는 잘못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굳이 또 회개하자고 할 필요가 없다. 사역에 헌신하지 않아 병이 오랜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신앙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신자나 비신자 모두 마찬가지다. “믿어야 낫는다”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낼 수 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과 다시 한 번 병문안을 와도 괜찮은지 묻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예배를 드려보라며 휴대폰에 CGN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는 것도 좋다.

신자들에게는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하거나 찬송을 하자고 권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오랜 병중에 있게 되면 기운이 없어 성경을 읽거나 찬송할 기운이 없을 때가 있다. 기운 없이 누워만 있어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자고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권사님이 친구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데 믿음이 식어 가는 것 같다며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여행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잣대로 믿음을 평가 하시나요? 그분 안에 고요하고 따뜻한 주님이 계시니 신앙을 상관하지 마시고 행복을 주는 부담 없는 여행을 다녀오십시오”라고 권면했다. 그 권사님은 손뼉을 치며 그냥 함께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다. 가만히 누워서 “주님”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병문안이다.

새해에 보면 좋은 영화 ‘어바웃 어 보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실감하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죄 사함의 은총과 거룩한 연합의 기쁨은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자아와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에 매여 살았다. 그로 인한 삶의 불편은 당연한 것이고, 원래 그랬던 것으로만 여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어져 하고, 더 인정받고자 몸부림쳤다. 그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내면의 문제와 복음은 적절한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 복음은 내게 단지 명제화 된 신앙고백이었으며, 역동성을 잃은 지식일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썩 썩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점차 화질한 무덤 같던 내 마음에 균열이 일어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우연히 보게 된 영화가 있다. 바로 휴 그랜트와 레이첼 와이즈 등이 주연한 2002년 개봉작 ‘어바웃 어 보이’다. 지금은 쟁쟁한 스타가 된 니콜라스 홀트의 홀룡했던 어린 시절 연기도 담으로 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제목과 같이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소년이 등장한다. 그 중 한 명은 ‘마커스(니콜라스 홀트)’다. 마커스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마커스는 가난한 형편과 촌스러운 옷을 입으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한창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나이에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엄마의 슬픈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른다. 아픈 엄마와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 소년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취향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외로운 생활을 한다.

〈브리짓폰스의 일기〉의 제작팀

휴 그랜트

어바웃 어 보이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들

또 다른 한 명의 소년의 이름은 ‘윌 프리먼(휴 그랜트)’이다. 그 이름처럼 그는 자유로운(Free) 자기 의지(Will)로 뽕뽕 뭉쳐 있었다. 윌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백수로 지내면서 여성들과 즐기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결혼처럼 깊은 관계는 늘 교묘히 피해왔다. 그는 자유롭기 위해 아무 관계에도 매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다. 성장하지 못한 어른으로 자라 있었다. 깊은 관계를 거부하는 그는 영화 초반에 “모든 사람은 섬”이라고 말한다. 그런 윌의 고립된 섬에 마커스가 찾아온다. 두 사람은 함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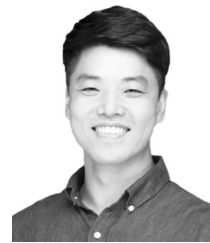
께 멈춰있던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결국 영화 말미에서 윌은 “모든 사람은 섬이지만 바다 밑으로 섬은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다. 그 경제적 상황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의 내면은 약함을 부인하고 감추수록 정체되고, 약함을 인정할수록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성장은 결코 나 혼자 이룰 수 없다. 다른 이에게 간섭 받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서로 불편한 말을 주고받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서로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립된 섬은 성장의 자리가 아닌 정체화의 자리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그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면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약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2018년 새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윤식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새해에 읽으면 좋은 도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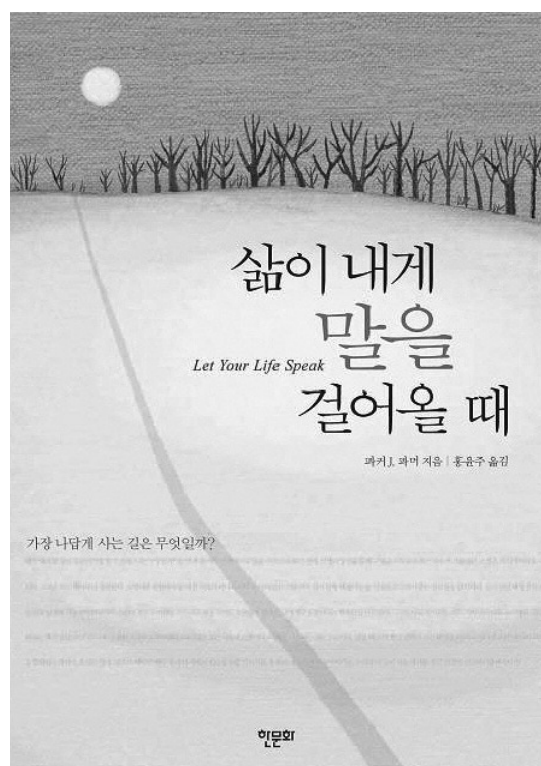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는 ‘들음’의 차원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행함’의 영역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나의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대체로 우리는 듣지만 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며 듣지만 행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우리는 ‘들음’의 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곰곰이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알고 있다고 속단하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큐티할 때 바로 적용으로 넘어가지 말고 묵상을 더 깊게 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들음’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Let your life speak(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들으라”는 의미다.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파커 파머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던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소명,



재능, 참 자아, 봉사, 공동체, 고난, 한계, 책임, 처벌, 진리, 사랑, 상처, 우울증, 고통, 겸손, 리더십, 영성 등의 주제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민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문장의 깊이도 그만큼 깊다.

저자는 숭고한 목표를 가진 영웅들의 인생을 훑어 보던 자신

‘들음’과 ‘행함’

의 잘못과 자신의 여러 실수담을 고백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한다. 인자한 할아버지가 고민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자신의 삶을 나누며 지혜와 통찰을 한 아름 선물해주는 느낌이다.

저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의 의도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야생동물을 보려면 숲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불러대선 안 된다. 오히려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나무 밑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던 동물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야생의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이 침묵 속에서 나의 영혼으로부터 들은 그 말 그대로이기를 소망한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침묵이다. 말로는 결코 건드릴 수조차 없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역시 침묵이다. 소명 역시, 의지에서 나오지 않으며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인생에는 듣지만 행하지 못하는 문제보다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자동으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들음’의 자물쇠가 풀려 문이 열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강현 전도사
(양지 온누리교회)

양재 · 도곡 차세대 주중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꿈아이놀이터, 드림씨드, 가스펠 프로젝트 등

양재·도곡교육관 차세대에서 주중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재 꿈이자라는땅(꿈땅, 초등부)의 키즈뮤지컬 찬양팀(키즈뮤찬), 키즈 챔버, 가스펠 프로젝트, 양재 예꿈(예수님의꿈아이, 18개월~7세)의 꿈아이놀이터(꿈터), 사이닝키즈, 가스펠 프로젝트, 도곡 꿈땅 가스펠 프로젝트, 도곡 예꿈 드림씨드와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 프로그램이다.

키즈뮤찬은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훈련 프로그램이다. 키즈챔버는 클래식 악기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중부서다.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2월 4일까지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양재와 도곡 꿈땅은 초등학교 1~6학년 자녀와 부모, 양재 예꿈은 6~7세 어린이와 부모, 도곡 예꿈은 7세 어린이와 부모가 대상이다. 양재는 2월 중에



지난해 양재 꿈땅 성탄예배에서 양재 키즈뮤찬팀 어린이들이 특순하고 있다.

모집할 예정이고, 도곡은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꿈터는 18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와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주중 아기학교이다. 2월 4일부터 30명 모집한다.

사이닝키즈는 6~7세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암송학교이다. 모집은 오늘

(28일)까지이다.

드림씨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어 놀이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30개월부터 7세 어린이와 부모가 대상이다. 2월 10일부터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문의: 02-570-7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캠퍼스	차세대 부서	주중프로그램	대상	일정
양재	꿈땅 초등 1~6학년	키즈뮤지컬 찬양팀(키즈뮤찬)	초등학교 3~6학년	3월 3일~6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홀A
		키즈챔버	초등학교 3~6학년	3월 4일~6월 10일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비전홀B
		가스펠 프로젝트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와 부모	3월 10일~4월 2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화명홀
	예꿈 18개월~7세	꿈아이놀이터	18개월~3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3월 13일~5월 1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꿈아이홀
		사이닝키즈	유치부 6~7세 어린이와 부모님	3월 31일~5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선교동 사이닝홀
도곡교육관	꿈땅 초등 1~6학년	가스펠 프로젝트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와 부모님	3월 10일~4월 2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화명홀
		드림씨드	30개월~7세 어린이와 부모님	3월 17일~4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꿈아이홀, 꿈터
		가스펠 프로젝트	유치부 7세 어린이와 부모님	3월 15일~5월 1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꿈아이홀, 꿈터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Go’ 300여 명 참석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Go’가 경기도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Like Jesus’를 주제로 진행된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Go’에는 대학부 리더십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

서는 이상준 목사, 정재륜 목사, 노지준 멘토, 최유강 대표, 김승수 목사, 최성민 목사가 개인, 세상, 직장, 가족, 성령, 캠퍼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호진(허브공동체) 자매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빙고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1월 31일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 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만)이다.

문의: 02-793-2998

차세대 패션집회 4년 만에 막 오른다

1차 2월 23~25일, 2차 25~27일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 ‘패션(Passion)집회’가 4년 만에 막 오른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1차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안산M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는 25

일부터 27일까지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팽택, 양지, 서산, 태안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차세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월 4일까지 5만원, 2월 5일부터 당일까지 5만5천원이다. 문의: 02-3215-352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리는 다음세대 응원단!

차세대 신년모임, 교역자 및 교육위원 131명 참석

지난 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다음세대 응원단’을 주제로 ‘2018 차세대사역본부 신년모임’이 열렸다. 차세대사역본부를 섬기는 교역자, 교육위원 등 131명이 참석해 교제하고, 신년 포부와 비전을 나눴다. 서산과 태안 기도처, 안산, 김포M센터의 교역자들도 참석해 더욱 뜻 깊었다. 이날 13명의 장로(박일환, 이종우, 진종구, 문쌍찬, 이종철, 조진호, 박치완, 조병현, 이

재광, 임현태, 오이식, 이동욱, 손태웅)들이 차세대사역본부의 신입교육위원으로 세워졌다.

이날 신년모임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근거한 복음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와 후원 위한 ‘장신 사랑의 밤’

2월 6일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후원을 위한 ‘장신 사랑의 밤’ 행사가 2월 6일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1부(환영 및 식사)와 2부(특순, 축하인사, 비전나눔, 약정식)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참석해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

임성빈 장신대 총장은 “장신 사랑의 밤 행사는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과 ‘장신비전 2020’을 나누고 후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장신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6

일.하.세. 사역팀 GUM예배 드려

지난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역팀에서 GUM(Get Up in the Marketplace) 예배를 드렸다. 이날 GUM예배에서는 책 《오늘을 그날처럼》의 저자 이철규 집사(치의학박사)가 ‘일과 신앙이 하나 되는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집사는 “통전적 복

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한다”면서 “종말론적 관점, 미래적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일과 신앙이 하나 되는 생활”이라고 말했다.

권태희 권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 번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허희하의 수화찬양세미나’ 개최

장애인사역본부가 후원하는 ‘허희하의 수화찬양세미나’가 2월 17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된다. 수화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하는 성도(중학생 이상)라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월 16일

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이다. 2월 9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1만원 할인해 준다.

강사는 허희하 전도사(누리사랑부)다. 허 전도사는 국제수화통역학 석사 및 재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문의: 010-7610-0191

1월 세례자

■서빙고

김영우 김윤리
김상부 691225 박준성 160816
마승연 820627 박진형 이기쁨
배예란 820429 백승은 170207
이숙영 810829 백종현 정선이
최은정 670127 서하준 160107
홍미정 830704 서영기 박수진
입교
안태인 160822
이은지 890221 안근홍 편은혜
유아
이노아 161016
김서은 160903 이재원 윤정환
김동진 신대리라 이하랑 151207
김서호 160903 이상수 이지영
김동진 신대리라 정다은 170215
김유영 160907 정집설 장미선
김제욱 마승연 정하영 170721
김윤아 160201 정명철 명지혜
김재범 고결 황규현 170201
김은유 170910 황성훈 배예란

■열린새신자예배

박현주 780207
신양미 770819
임종민 811220
정현이 880401
■양재
김민정 730113
김연진 580927
김 훈 561120
박지수 940505
안영주 811119
양지혜 920611
이경석 560210
이지순 550226
이지영 810918
장문주 710523
하지윤 760228
한덕수 510727

유아

강인준 170315
강병구 허정수
김도율 160826
김동호 박희영
김서로 161128
김일환 서지나
김유진 170122
김정수 김경은
박수영 160920
박진관 안영주
박예은 160402
박재범 서보라
이해준 160727
이대현 배소영
조빛나 170526
조태일 박자현
최서은 160712
최현철 박명희

홍준우 160426

홍정주 김동은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이찬규 800124
임정한 811114
박용순 850705
정예진 921017
입교
오수연 820125
허브
김리나 981008
김민정 950731
문종원 970318
조이석 950605
입교

임본아 971118

하늘
강예본 970302
강혜인 980908
J4U
입교
조정임 19840605
SNS
김홍선 850606
문민정 930612
입교
최희연 900307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간증



/ 남상현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첫날부터 강 추위가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첫날부터 나의 마음은 온통 성령님께 붙들린바 되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창칼에 찔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셨다. 때마침 나는 한 어르신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의 동반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신 어르신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등이 그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이 창조주 하나님

충만한 은혜

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나는 매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감사하게도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말씀이 그 어르신님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중 한 가지는 이것이었다. 그 어르신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매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셨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일대일 동반자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유광춘 성도(인천 예수소망하나교회)

반쪽 하트에서 완성된 하트로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일과 관계형성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 사회에서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이 곧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평일은 회식과 늦은 귀가가 빈번했고, 토요일은 동호회 활동하느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생활이 아내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니 남편과 아버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느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틈을 만들고 그 틈의 간격을 벌리고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아버지학교다.

어느 날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님께로부터 아버지학교를 소개받고 참가신청을 했다. 아버지학교에 대한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어서 멍멍하게 시작했다. 1주차 ‘아버지의 영향력’ 강의를 들을 때였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박대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어린 시절도 기억났다. 또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를 단절하고 지내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주차 ‘아버지의 남성’과 3주차 ‘아버지의 사명’ 강의는 내 마음속에 작은 동요를 일으켰다. 형식적이고 입으로만 말하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전달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 동안의 삶을 진실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4주차 ‘아버지의 영성’과 5주차 ‘아버지와 가정’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세상의 눈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느끼게 되었다.

어느 자리에서 문득 아내가 나에게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라고 말했다. 아버지학교 송년 가족의 밤 행사에서 아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내뱉었던 하트의 반쪽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 반쪽의 하트가 다시 하나의 하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학교 본부 131기를 수료하고 지금은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의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아내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안태인 부: 안근홍 모: 편은혜

기대하고 기도한다

태인이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태인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틔울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태인이 이전에 유산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 임신 기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불완전함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심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출산을 준비했다. 태인이가 태어났을 때 감사와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태인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향한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향해 활짝 웃으며 전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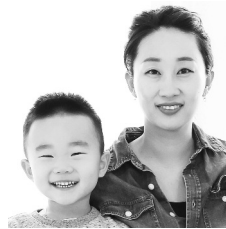
으로 기어오고, 달려오는 아이를 보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때는 감격스러움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이렇게 행복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도 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의 부족함을 잊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다.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결심한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고전 1:3).

이 말씀처럼 태인의 인생이 부족한 우리 부부가 채우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꿈아이놀이터 간증



/ 이아영 교사(꿈아이놀이터)

꿈터는 쉼터이자 귀한 선물

2015년 3월, 꿈아이놀이터(이하 꿈터) 개강 예배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나는 첫 아이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많았다. 그저 주님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그곳이 꿈터였다. 꿈터를 알게 된 건 영아부 예배 광고를 통해서였다. 20개월 이상 자란 아이부터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지원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아이보다 엄마인 내가 오히려 더 설렘과, 예배드릴 때 앉자마자 울면서 기도했다. 그때가 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는 시간이 흘렀다. 2년 4학기 동안 전도사님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사랑과 헌신을 절실하게 느꼈다. 한 아이, 한 아이 껴안고 기도해주시는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대그룹과 소그룹, 간식시간 등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이 나의 쉼터였다. 무엇보다 꿈터는 하나님께서 육아에 지쳐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나를 특별히 초대해 주신 은혜의 자리였다. 매주가 새로웠고, 꿈터 가는 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작년부터 교사로 섬기고 있다. 당시 임신 중이었지만 큰아이와 함께 섬기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섬세한 섬김에 깜짝 놀랐다. 특히 집에서 주방기구를 가져와 간식을 손수 만드는 정성과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섬김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꿈터에서 받은 사랑이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큰아이는 꿈터에서 말씀을 먹으며 무력무력 자라나 어느덧 6살이 되었고, 유치원 생활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다. 지금 3개월에 접어든 둘째 아이도 꿈터에서 예배의 첫걸음을 걷고자 한다. 예수님의꿈아이 꿈아이놀이터는 주님이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모집
분야: 찬양, 대교, 소그룹 등
문의: 길혜영 전도사(010-3174-8107)

권사칼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한영희 권사
(가정사역공동체)

작년부터 서빙고 권사회 대표로 섬기면서 느낀 점이 있다. 권사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권사님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고, 돈독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역보다 관계에 초점을 둔 덕분이다.

사실 나는 일 중심적이다. 미국에 있을 때 혼자서 교회 사역을 많이 했는데 1998년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다만 가정사역공동체 소속이다 보니 남편과 함께 사역하는 일이 많았다. 3년 전 교수를 은퇴하고 작년부터 권사회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부담과 걱정이 밀려왔다.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계속 고민했다. 문득 이전에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고, 서로를 드러낼수록 더욱 충돌되었다. 하나님이 빠진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절실히 느꼈었다.

그때 나는 일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일 중심인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 후부터 권사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 나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권사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안아주었는데 반응이 최고였다. 안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다. 회장이기에 내 의견을 밀

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의 의견을 철회하고 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그 이후에 나의 의견을 제안했더니 임원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권사님들이 나의 의견을 믿고 따라와 줬다. 만약 내가 끝까지 나의 의견을 내세웠다면 반발과 마찰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그것을 알아주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권사회도 사역이지만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먼저 서로 하나 되면 일은 뒤따라온다.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고,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일처럼 다함께 섬기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월례회, 크리스마스 등 행사 준비로 매우 바빴다. 이틀에 한 번씩 교회에 와야 했을 정도였다. 다들 피곤하다는 것을 알기에 몇 명만 와서 섬기자고 공지했는데 모두가 섬기러 오겠다고 했다. 이제는 어떤 사역이든지 두렵지 않다. 협조와 단결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면 사역은 정말 쉽고,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다른 권사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임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한다.

지금도 여전히 권사님들을 보면 사랑스럽다. 권사회를 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느낀다. 교회에서 권사는 영적 주부다. 엄마같이 품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기수 권사님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역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응원한다.

장로칼럼

천국(天國)의 문(門)



이한열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여기는 땅
하늘 아래 사람들의 터

이곳은 잠시 거쳐 가는
나그네 길이란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닌가 싶다

땅은 천국(天國)에 들어가는 자(者)로
새롭게 맹글어지는 하나님의 태(胎)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아기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 주 예수님만 있으면
죽어도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갈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칼럼



박철모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JDS 서빙고 주간반
담당)

예수제자학교(JDS)는 1999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주간반 1기를 기점으로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제자양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제자학교를 졸업한 한 성도님의 뜻밖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확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의 리더십들은 모두 예수제자학교에 신청하십시오!”

강하게 입학한 권하는 하 목사님의 광고에 당황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제자학교가 벌써 주간반은 스무 살이 되었고, 저녁반은 열 아홉살이 되었다. 섬기는 간사님들부터 커리큘럼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 때문인지 예수제자학교는 서빙고에서 양재를 포함한 온누리교회 캠퍼스로 확장되었다. 이제는 매년 5개 캠퍼스에서 7개 반이 동시에 열리는 온누리교회 대표 영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선교지와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제자학교에 지원하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성도들이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변화를 절실하게 원하지만 가장 변화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 특별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목마름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교회의 리더로 섬겼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부터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지만 고슴도치를 안은 것처럼 너무 걸려있는 가족 관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있다. 그래서일까? 예수제자학교 신청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내가 변화하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청자들이 많다. 그렇게 입학한 사람들이 9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섬긴 간사님들로부터 이러한 간증으로 되돌아온다.

“이번에 입학한 000 성도가 너무나 몰라보게 변했어요. 처음 예수제자학교 들어올 때의 어두웠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환한 보름달이 떴어요.”

간사님들의 기쁨의 고백 속에는 지난 9개월을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느라 쌓인 피로감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제자학교를 담당

하는 목회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리고 다음해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신청 이유를 들으면 더욱 힘이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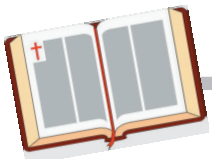
“예수제자학교를 들었던 000 성도 남편인데요, 아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보아겠다는 마음이 들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예수제자학교의 열매는 결국 변화된 개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이 말씀처럼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가?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제자학교에 지원하길 적극 추천한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한번 살다가 죽는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33절).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버림받았고, 정죄 받았고, 아무도 접촉할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것은 자신의 질병을 몰래 고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고침 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 율법과 잘못된 자신의 관념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너의 죄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옛사람을 처리해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그분을 부정한 분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헛된 자존심이 살아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율법적인 사고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신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는가?”라고 추궁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여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집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받으려고 손을 벌리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세계관 속에 파묻혀 있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침 받는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놓으므로 세상의 모든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여인의 모든 죄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온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까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뒤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을 받아주시고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고, 이미 집을 지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짐과 죄와 허물도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죄 짐을 예수님은 모든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그대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미신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모두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지든 머리카락을 만지든 발꿈치를 부여잡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또 다른 선교방법, ‘원 클래스 원 스쿨’



오성연 장로
(강촌공동체)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교육학교
개발원 원장

‘원 클래스 원 스쿨 (One Class One School)’이란 ‘교실 하나는 학교 하나’라는 뜻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육학교 개발원의 동명 연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어느 국립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교육은 삶이며, 삶은 교육이다’라는 표어를

본 적이 있다. 교육의 목적을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말이 없을 것 같다.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산 제사’는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일상생활(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나아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제물로 바칠 때 영적 예배가 됨을 의미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과 교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이다.

나는 원 클래스 원 스쿨이야말로 교육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교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도살해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제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는 사라졌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확장되었다.

예수님 탄생 이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천주교가 그 시작이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오직 사제(신부)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약 1500년 동안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천주교 신부 마틴 루터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만민제사장’을 선포하며 신부(제사장)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신앙생활)가 잘못되었음을 알렸고, 이를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였다.

개신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교재로 남녀, 귀천,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성경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연구하며,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워나갔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성경에 나오는 만민제사장 시대의 교육으로 이룬 역사적 사실이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 8:10)는 말씀은 정금(순금)보다 지식, 은보다 훈계를 택하라는 교육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강조한다. 보이는 물질(은과 금)보다 보이지 않는 훈계와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곧 교육활동임을 보여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 인구 약 72억 명 중에 36억 명이 비문해자라고 한다. 세계 인구 절반이 비문해자인 셈이다. 문자를 못 읽는 사람(8억 명)은 문맹자이고, 비문해자는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알 수 없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도 비문해자가 존재한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 진리와 복음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초등)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선교 거부 국가인 이슬람과 사회주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어렵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환영받는다. 문맹자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성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열악한 교육환경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의 열악한 교육환경도 비슷하다. 흔히들 학교라고 하면 운동장, 교실, 건물, 선생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완비된 시설부터 연상한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재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실제 이유는 도전정신과 준비된 마음, 개척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려는 학생들이 주체이다. 장소와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환경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진리와 복음 확산에 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교육이다. 교육은 학교를 통해 비문해자를 교육시키는 최소한의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종교, 국가 체제, 이념, 사상을 초월해서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 나라 제도에 합당하게 협의하면 교육 활동은 무난하리라 확신한다.

One Class One School
홈페이지: www.sunyesdi.org
이메일: syoh@sunykorea.ac.kr
전화: 032-626-1421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

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스페인어 기도모임

인도: Ps. Cristian Neira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

문의: 010-4924-2703 *통역 지원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아름다운 동행 181기 (부부코칭 프

로그램)

기간: 3월 10일~4월 28일

(매주 토 오후 3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회비: 150,000원

문의: 김형숙 권사(010-9041-5538)

* 3주차(3/24일)는 과천 로고스센터에서

수련회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 15기

기간: 3월 10일~4월 28일

(매주 토 오후 3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회비: 150,000원

문의: 김형숙 권사(010-9041-5538)

* 3주차(3/24일)는 과천 로고스센터에서

수련회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월간 ‘아

버지’ 기사 모집

업무: 취재, 기사작성 및 교정, 교열, 대외연

통홍보 및 행사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마감: 2월 7일까지 이메일

(hageon79@father.or.kr)로 제출

문의: 김하진 간사(02-2182-9123)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YOU:TURN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MC : 아나운서 박지윤

패널 : 교수 이호선, 개그맨 정범균
방송인 프랭크 이마니, 개그맨 김상태

게스트 : 목사 한기채, 서정오, 주석현

2018년 1월 30일 방송

<매일 퇴사를 꿈꾸는 나, 잘못된 걸까요?>편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퇴사에 대한 고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퇴준생의 고민과 크리스천의 직장생활을 들어보고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2018년 2월 유턴이 준비한 솔루션



2018년 2월 6일

<교회, 옮겨도 괜찮나요?>편
교회를 이동하고 싶은 이유와
고민 들어보기



2018년 2월 13일

<결혼, 꼭 해야 하나요?>편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비혼족 증가 현상



2018년 2월 20일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고독사'>편
점점 낮아지고 있는 고독사의 연령과
해결 방법



2018년 2월 27일

<크리스천의 미니멀라이프란?>편
단순하게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의 실상